

어린이 책꽂이

▲할머니와 친구가 될 순 없나요=8살 소녀 리즈와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세대차를 뛰어 넘어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두 사람은 과자, 책, 우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다. <책크룩·7천500원>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 생각계획표=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이야기한 공병호 박사의 '부자의 생각'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자기계발서다. 긍정적인 생각은 한계를 뛰어넘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해냄 주니어·9천500원>

▲별이 뜨지 않는 밤=미국 도서상 협회와 우리나라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이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철강도시를 소재로 개발과 산업화라는 이유로 어떻게 환경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동신사·8천원>

▲둥글이 누나=휴전이후 10여년이 지난 뒤 강릉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굳건히 해내야 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다. 1960년대 전쟁의 상흔을 복구하면서 조금씩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 부모세대의 공황했던 시절이 풍경처럼 펼쳐진다. <사계절·8천500원>

▲할아버지의 탈=미국에 사는 주인공 기민이는 할로윈에 어떻게 꾸밀 것인지 고민하던 중 한국의 이름난 탈꾼이었던 할아버지의 유품이 된 상자를 열게 된다. 탈이라는 한국 전통문화와 할로윈이라는 외국문화의 결합을 통해 기민이는 할아버지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크레용 하우스·8천원>

18세기 '프로'들의 열정과 삶

조선의 프로페셔널 안대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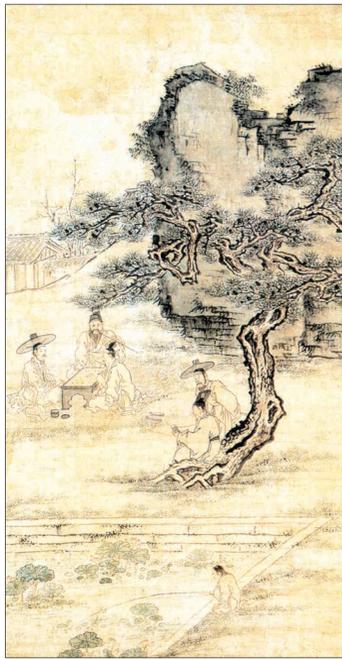
현대 사회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프로페셔널의 공통 분모는 자신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한 사람이다. 각계에서 자칭 내로라하는 프로들이 많지만 '진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말이지만 18세기에도 프로의 범주에 드는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전학자이자 명지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인 안대희씨가 6년여에 걸쳐 발굴한 인물 10명의 삶을 수록한 '조선의 프로페셔널'은 18세기 '프로'들의 치열한 열정과 삶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인물들은 여행가, 프로기사, 촌꾼, 만능 조각가, 책장수, 원예가, 천민시인, 기술자 등 자신의 영역을 개척한 용기와 집념의 화신들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대에는 '벽(癖)과 치(痴)'라는 개념으로 소개됐으나, 20세기에는 마니아로 통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성이 고향인 평민 소년 정운장은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두었다. 조선제일의 국수가 되기 위해 10년 동안 바둑공부에 매달린 끝에 당대 최고수였던 정박과 김종귀 등 훌륭한 명인들을 제압하고 반상의 제약을 올랐다. 원예가 유박은 영·정조 시대 화훼전문가다. 자신이 직접 백화암(百花菴)이란 화원을 경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화암수록(花菴隨錄)이란 화훼전문지까지 펴냈다. 저자가 '조선의 다빈치'로 표현한 조각가 정철조는 수학자, 천문학자도 명성을 날린 인물이다.



그는 타고난 지리학자, 지도제작자이기도 했다. '운심'이란 기녀는 연암 박지원의 광문자전(廣文者傳)에도 언급될 정도로 뛰어난 기예를 지녔던 최고의 춤꾼이었다. 천재를 알아보는 명사들에 대한 일화도 소개된다. 조선 최고의 시인이었던 이용휴 선생과 당당한 청년 이단전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이단전이 다짜고짜 소매자락에서 꺼낸 시집을 훑어본 이용휴 선생은 벽도화(碧桃花) 한 가지를 꺾어 건넨다. 이단전이 받은 벽도화는

여행가·프로기사·책장수 등 10인 자신의 영역 개척한 집념의 화신들

최고의 찬사였다. 그가 창작한 '관왕묘(觀王廟)'는 사대부들까지 즐겨 감상하는 애송시가 됐다. 조선신선은 조선 최고의 출판 마케터였다. 그가 책을 팔러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독특해서 누구나 알아보는 명사였다. 조선신선은 평소 몸에 책을 소중하고 다녔는데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몸 안에서 꺼낸 책이 방안에 가득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밖에 화을 내려 앉게한 현악기의 거장 김성기, 자명종 발명에 일생을 바친 천재 기술자 최현약 등이 소개된다. 저자 안대희씨는 "목숨과 맞바꿀 각오로 자기 분야에 헌신한 18세기 '전문가'들의 인생은 오늘날 금전으로 환산되는 '프로'들의 삶과는 사뭇 달랐다"며 "신분사회인 조선시대 전문가들의 인생



조선시대는 바둑기사, 여행가, 조각가, 원예가, 무용가 등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을 불사른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다. 사진은 선비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을 그린 '후원이집도(後園雅集圖)'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자크 아탈리 '합리적인 미치광이'

지난 밀레니엄(서기 1001~2000년)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칭기스 칸이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1995년 송년호에서 밝혔다. 몽골의 작은 부족이 아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거대한 땅을 정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칭기스 칸은 병사에게 가족 부대에 농축시킨 '보르츠'와 이동 천막인 '파오(케르)'를 말 공동이에 매달아 군용식량과 짐자리를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유럽의 보병부대를 제압했다.

이름 곧 정주민(定住民-Sedentary)과 유목민의 차이점에서 온 이동의 간편함이다. 정주민의 역사는 종이에 기록된 반면 유목민의 선사(先史)는 바람에 새겨져 날아간다. 바로 우리 민족의 이동경로가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디아스포라(Diaspora·유랑, 이산)라고 말하고 또 환상방황(環狀彷徨)이라고도 한다.

이런 현상은 민족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20세기의 '제국주의 광풍'에서 연유했고 따라서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20세기를 '악마의 세기'라고도 말한다. 이 악마의 세기 다음에 오는 것은 신유목 시대, 즉 노마드 가는 인간의 세기다. 다시 말하면 인종도 국경도 가족도 무너지는 '유랑하는 형제들'이 새로운 부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리적인 미치광이'(중앙 M&B 펴냄)에서 자크 아탈리는 쓰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유평파인 신유목 시대이고 환상방황이며 디

'디지털 노마드'시대의 가치



아스포라라고 말한다. 정말 생각해 보라! 우리가 꿈꿀 약속의 땅이 처음부터 없다면 아예 떠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 아닌가. 세계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코르너 시대는 유행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함도 200만 조선족이 분리국가로 독립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정치적 술수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것이 '동북공정'이다.

이름 자크 아탈리가 문명의 흐름을 살펴면서 개념화한 '도시 유목민' 또는 '디지털 유목민' 시대에 삶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동시적 물음이기도 하다. 즉 노트북, 컴퓨터, PDA, 휴대전화 등 21세기 '문화적 유목민'이 갖고 다니는 배낭 속의 장비들이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넘나들면서 디지털화되지 않는 삶은 삶으로서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물음과도 일치한다. 세 강 중에 한 강이 이혼하고 50%의 여성과 남성이 이혼 상방향을 꿈꾸고 있다.

따라서 자크 아탈리가 그리는 유평파의 세계는 '도시 유목민의 형제애를 실현하는 세계'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이 유평파가 실현하려면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형제애) 가운데서도 '형제애'라는 덕목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형제는 강자보다 오히려 약자,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외국인, 패배자 등을 일컫는다. 이는 다른 아닌 보편적인 '이타주의' 그것이 바로 '형제애'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사회과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 접근이며 오히려 시적 접근인 것으로 비쳐진다. 또 저자는 500만 년의 인간 출현 역사에서 겨우 7천 년의 기간만이 정착 시대고 그 나머지는 유목 시대의 역사였으며 지금은 신유목 시대로 이항해가는 세기라고 진단한다.

송수권 (시인)



죽어 쓰러진 나무에서도 생명이 산다

나무의 죽음 차윤정 지음

죽어 쓰러진 나무는 숲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딱따구리가 나무 구멍을 이용하고, 그 속에는 애벌레가 살며 균사와 버섯 등 이끼 군단이 터전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신갈나무 투쟁기', '숲의 생활사' 등을 통해 숲 속 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숲 학자 차윤정씨가 3년 만에 '나무의 죽음'을 내놓았다. 이번 책 역시 숲의 생활사를 생생하게 전한다는 관점에서 전작들의 연장선 상에 있다. 저자는 오래된 나무가 선 채로 죽고, 쓰러지고, 분해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그 뒤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처 알지 못했던 숲의 탄생과 소멸, 부활의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준다. 저자는 150여컷의 사진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고사목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저자는 특유의 문학적 감성이 담긴 문체로 자연의 감동을 글로 옮겼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국사에 족적 남긴 귀화인 이야기

...귀화 성씨 박기현 지음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말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는 주변 나라에서 혼란을 피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뒤 한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다. 대중역사서 작가 박기현씨는 "우리 민족은 '잡탕'이라 할 만큼 많은 외래집단의 혼성체"라고 주장한다. 화산 이씨의 시조 이용상은 베트남의 첫 독립국가인 리씨 왕조의 왕족이었고, 이성계와 위화도 회군을 감행했던 조선 개국공신 이지란은 여진족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조총과 화약제조법을 전수한 일본인 고위장수 사야카는 김치 성을 사용하면서 조선에 눌러 앉았고, 소주 가씨의 시조 가유약은 명나라 조정의 고위 관료였다. 1부에는 귀화인 9명의 이야기가, 2부에는 시대 별로 구분한 귀화의 흐름이 실려 있다. <역사의이집·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매대학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 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 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 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의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의는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습의 거리 한백만 사거리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0505-313-1515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강사진! 열강! 역강! TESOL 박사 최갑원장 토익만점 11회 조성훈 교수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습의 거리 한백만 사거리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

Cell Banking 셀뱅크는,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형 치료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별 지점모집 KSEB 한국셀기세포은행 광주지사 (062)373-3475 (세포치료) 아래 지정 병원과 상담하세요 www.koreacellbank.com 지점병원 전남동부지점(순천, 여수, 광양) 061-743-3475 • 광주 광진 첨단하나산부인과 973-0910 이창의의원 953-7582 고은의원 951-9011 다나가정의학과의원 955-1888 소촌연합의원 943-587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남구 한중가정의의원 675-8075 장내과의원 225-1616 이성재이비인후과 366-2538 동구 본정형외과의원 236-3501 은누리가정의의원 234-7571 북구 한술내과의원 575-0075 성보의원 526-7772 양정형외과의원 571-2277 삼각연합의원 251-0042 장수연합의원 062-266-7598 희망의원 573-5451 현대정형외과 529-1101 국민근피부과의원 573-9975 한빛신경외과의원 574-7582 우병진내과의원 269-3300 서구 퍼스트의원 384-0044 다나.통증의학과의원 651-7578 한사랑통증의학과의원 365-7582 홍암산부인과의원 681-0800 • 전남 광양 정외과의원 792-8561 나주 이필수외과의원 332-9800 목포 성모의원 242-5554 청호의원 274-7077 아름다운의원 274-8275 순천 금강병원 720-3500 모두편안내과 725-7568 영광 김기형내과 353-7521 장성 삼성의원 395-3800 김내과의원 393-7533